

항일독립운동가·화가 김주석 미술상 제1회 자유상상화 전국 미술 공모전 개최 공고

1. 주최 : 사단법인 괴암 김주석 기념사업회
2. 후원 : 경상남도·경상남도교육청·창원특례시, 창원시교육지원청
3. 출품자격 : 전국 유치원·중·고·대학생·일반인
4. 주제 : **자유상상화**(주제 및 재료는 자유이며 별첨 제작 유의점 참조)
자유상상화의 형식이나 의미를 포함하는 작품이어야 함)

5. 시상계획(예정)

구 분	수상자 수	시상자	비고
대상	일반2·대학 1명	경상남도 및 창원특례시 기관단체장 상	상장 (별도의 기념품 증정)
	중1·고등 1명		
최우수상	6명 (유,초,중,고,대,일반)	경상남도 및 창원특례시 기관단체장 상	상장 및 기념품
우수상	9명 (유,초,중,고,대,일반)	괴암 김주석 미술상 운영위원장상	상장 및 기념품
특선	20명	"	상장
입선	약간명	"	상장

※ 수상자 수는 참가자 수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5. 출품규격 : 유·초교, 중학생 8절 이내의 평면작품(1인 1점)
고교, 대, 일반성인 4절 이내의 평면작품(1인 1점)
(단, 표구 또는 액자 없는 작품으로 파손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6. 참가비 : 참가비 및 물품판매 일체 없음
7. 심사 및 발표 : 괴암김주석 기념사업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문자통지
8. 접수 : 2022년 10월 4일(화)~10월 14일(금) 도착(소인) 작품에 한함
김주석 기념사업회 사무실 (055)245-8556 / 010-8998-2533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북9길 23-1 (구 주소 : 신월동 36) (우 51761)
9. 입상자발표 : 2022. 10. 20. 11 - 괴암김주석홈페이지(bossrock.kr) 개별통지
10. 시상식 : 2022.11. 01. 15시 진해문화센터 컨벤션홀(우수상 이상)
특선 입선 상장은 우편 발송(11월 말까지)
11. 작품전시(우수상 이상) : 2022.11.01.-11.08.(8일간)/ 진해문화센터 1층 전시실
위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3일

사단법인 괴암 김주석 기념사업회 회장 전보경



* 신청서 부착시 유의사항 작품 뒷에 개인별 신청서를 부착하여 제출

항일독립운동가·화가 김주석 미술상 제1회 자유상상화 전국 미술 공모전 참가신청서

학생(유치원 포함)

학교명	학년 성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일반인

단체 (속속)	성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학원 단체별 일람표 작성 일괄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자유상상화 공모전 작품의 유의점

자유상상화란 글자 그대로 자유롭게 그리는 상상화라는 말로 아무런 부담과 형식·기법에 구애받지 않고 그림을 그리는 내용으로 의미가 있건 없건, 직선이나 곡선을 자유롭게 그린 다음 그 선을 보고 연상되는 그림을 그리고, 다음 작업으로 여백의 부분에 배경을 그리고 장식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채색을 하거나 자료를 붙이고 긁고 뿐리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창의력이나 상상력이 길러지고, 질료를 이해하고 미적 체험을 할 수 있는 활동이다. 그러나 이 공모전에서는 김주석 선생의 호국정신의 의미나 연상되는 내용을 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며 요점이다.

김주석선생께서 그런 자유상상화의 몇 가지 예를 한 번 보자



그림 3. 곡선을 그리고 거기에 연상되는 그림을 그려간다.



그림 2. 앞의 그림에 비하여 점차 복잡해진다.



그림 4. 점차 복잡해지고 채색이 들어가며 확실하지는 않지만 무언가 의미가 드러나기도 한다.

위의 그림을 보면 아무 의미 없는 곡선을 그린 다음 그에 연상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점차 복잡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여기서는 아직 무슨 의미가 있으며 어떤 정신이 들어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림3> 에서는 무언가를 의미가 드러나고 있는 듯하다.

우리의 과제 중에 호국정신의 의미를 부여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글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호국정신을 연상하게 하는 행동이나 표정, 상징물, 글자 등을 배치하고 남은 여백에는 장식하거나 색칠을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채색을 하는 과정에서 호국정신을 포함한 창의력이 길러지는 참 좋은 미적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수묵으로, 유화로, 크레파스로, 색연필로, 사인펜 등 자유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해 보자.